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 ▲에스케이텔레콤(SKT), ▲카카오, ▲케이티(KT) 3개 사업자 선정 (가나다 順)
- 협약 체결 및 베타 서비스를 거쳐 연내 전 국민 대상 서비스 개시

【관련 국정과제】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 6개 사업자(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에스케이텔레콤(SKT) 컨소시엄, ▲카카오 컨소시엄, ▲케이티(KT) 컨소시엄(이상 가나다 順)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서면평가로는 ▲AI 모델 및 서비스 경쟁력, ▲GPU 활용 및 인프라 운영 계획 등 기술 적합성을 심사하여 적합/부적합을 판단하였으며, 프로토타입 영상 시연을 포함한 발표평가에서는 ▲서비스 편의 및 이용자 확보 전략, ▲서비스 품질·안전성 확보 계획, ▲생태계 기여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었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각자의 강점과 특징을 활용해 다양하고 폭넓은 대국민 접점을 제공하고, 외산 AI를 뛰어넘는 범용 AI 챗봇 서비스와 복잡한 신청 절차를 대신해 국민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공공 AI 에이전트,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한 차별화된 특화서비스 계획을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3개 사업자에는 올해 총 GPU B200 512장을 지원하고, '27년부터 정부 예산을 통해 전 국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의 주관·참여기관과 서비스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다.

※ 공모 참여 기업의 요청에 따라 평가 점수 및 순위는 미공개

에스케이텔레콤(SKT) 컨소시엄 - “질문 하나로 시작해, 일상 업무를 대신 끝내는 AI”

주관기관	참여기관(가나다 順)	활용 모델
에스케이텔레콤 (SKT)	굿닥, 노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라이너, 사운더블헬스코리아, 셀렉트스타, 신한카드, 알프레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에이투시스, 에임인텔리전스, 엘리스그룹, 채널코퍼레이션, 티맵모빌리티, 페르소나에이아이, 하나카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해빗팩토리, 해시드벤처스	A.X K2, Solar Open 2, Motif 3, K-EXAONE 2.0 등

에스케이텔레콤(SKT) 컨소시엄은 요청 하나로 계획 수립부터 실행, 결과 확인까지 처리하는 실행형 AI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앱·웹뿐 아니라 전화·문자로도 이용이 가능하여 스마트폰 앱이 낯선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도 별도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국내 행정·지역 생활 맥락에 특화된 대화와 검색 품질을 제공한다. 또한, 공식 API가 없는 매장·관공서도 검색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 대행으로 연결하는 AI 에이전트 기능을 구현하며, 건강·금융 등 생활 밀착 분야의 특화 서비스를 함께 선보인다. 아울러, 여러 컨소시엄 참여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트업과의 제휴를 통해 에이전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 컨소시엄 - “국민 메신저에서 예약·신청·결제까지 완결하는 AI”

주관기관	참여기관(가나다 順)	활용 모델
카카오	데이원컴퍼니, 루닛, 서울대학교병원, 신한은행, 엘지경영개발원AI연구원, 엘지씨엔에스, 엘지유플러스, 엘지전자, 워크피어유한책임회사, 원더풀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크라우드웍스, 퓨리오사에이아이	Kanana, EXAONE, K-EXAONE 2.0 등

카카오 컨소시엄은 국민이 매일 쓰는 메신저를 진입점으로, 범용 챗봇과 AI에이전트를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와 함께 연내 범용 전화 AI 서비스의 라이트(Lite) 버전을 출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PlayMCP·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와 연계해 유망 AI 기업이 특화 에이전트를 직접 제작·시험·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특화 에이전트를 빠르게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AI 생태계 기여로도 이어지는 구조를 갖췄다. 이 밖에 시니어케어·세무 등 생애 주기별 특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케이티(KT) 컨소시엄 - “공공·생활서비스를 하나의 대화로 모으는 AI”

주관기관	참여기관(가나다 順)	활용 모델
케이티(KT)	다음, 답서치, 래블업, 리벨리온, 매스프레소,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무신사, 베슬에이아이코리아, 비씨카드, 솔트룩스, 액션파워, 업스테이지, 엔씨에이아이, 직방, 커넥트웨이브, 한국교육방송공사	Mi:dm K Pro 2.5, Solar Pro 4, Motif 3 등

케이티(KT) 컨소시엄은 하나의 대화 흐름 안에서 정보 탐색과 비교·판단부터 공공·특화서비스 실행, 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Daum 포털·앱의 검색·뉴스·콘텐츠 이용 동선은 물론 다나와·무신사·직방 등 파트너 채널에도 AI 진입점을 배치해, 검색 수요를 AI 챗봇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또한 KT 통신 채널과 미디어(IPTV 등)를 모두의 AI와 연계해 일상 채널 어디서든 AI 이용을 시작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 밖에 교육·부동산 등 생활밀착 분야의 특화 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9월 중 3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베타서비스를 거쳐 연내 「모두의 AI」 서비스를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정된 사업자와 즉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동시에, 공공데이터 연계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모두의 AI」가 대한민국의 대표 AI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국민 접근성 제고, 브랜딩, 홍보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인공지능정책실 인공지능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공진호 (044-202-6270)
		담당자	서기관	이종근 (044-202-6262)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